



박지성 “챔스리그 우승하고 싶다”

英 스카이스포츠와 인터뷰서 ‘자신감’ 피력 “유니폼 판매용 선수 아닌 실력 증명할 것”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 이것이 내가 맨유를 떠나지 않는 이유다” 최근 2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의 ‘승리 도우미’로 주목받고 있는 박지성(29)이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영국 스포츠전문채널 스카이스포츠와 맨체스터 지역 신문인 ‘맨체스터 이브닝 뉴스’ 등 영국 언론들은 17일(한국시각) 일제히 ‘박지성, 절대 맨유를 떠나지 않는다’, ‘박지성,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맨유에 남아있다’ 등의 제목으로 박지성과 인터뷰 기사를 크게 다뤘다.

언스리그 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됐을 당시 심정을 묻는 말에 “그날 밤에 정말 큰 실망을 했었다. 그래서 맨유를 떠나고 싶지 않다. 맨유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 그것이 내가 맨유에 남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인터밀란, 첼시 꺾고 챔스리그 8강 올라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강호 인터 밀란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를 꺾고 2009-2010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에 올랐다.



인터밀란 사미엘 에토오(가운데)가 영국 런던 스탬퍼드브리지에서 열린 첼시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후반 33분에 결승골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5일 1차전 홈경기에서 2-1로 이겼던 인터 밀란은 1, 2차전 합계 3-1의 완승으로 8강 진출 티켓을 얻었다.

지난 시즌 FC바르셀로나에서 이브라히모비치와 트레이드로 세리에A로 옮긴 에토오는 후반 33분 웨슬리 스네이더르가 후방에서 길게 올려준 패스를 받은 뒤 상대 오프사이드 트랩을 뚫었고 상대 골키퍼 로스 토틀과 1대 1로 마주한 상황에서 침착하게 밀어 넣어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순천시청 조성제-우형곤 개인복식 우승

대만오픈 청산컵 국제정구 조성제, 흔복도 우승 2관왕



제7회 대만오픈 청산컵 국제정구대회 남자복식에서 우승한 조성제(맨 왼쪽)·우형곤(맨 오른쪽) 선수와 김태성 감독. <순천시청 제공>

순천시청 소속 조성제-우형곤 조가 제7회 대만오픈 청산컵 국제정구대회 정상에 올랐다. 지난 2008년부터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조성제-우형곤 조는 최근 대만 대중시 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 개인 남자복식 결승에서 일본팀을 5-3으로 누르고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제7회 대만오픈 청산컵 국제정구대회 남자복식에서 우승한 조성제(맨 왼쪽)·우형곤(맨 오른쪽) 선수와 김태성 감독. <순천시청 제공>

이상의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은 선수들이 동계훈련을 열심히 한 결과”라며 “이같은 여세를 몰아 각종 국내의 대회에서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휠체어컬링 4강 보인다

패럴림픽 伊 완파 4승2패 공동 2위

한국 휠체어컬링 대표팀이 2010 밴쿠버 장애인 동계올림픽에서 이탈리아를 완파하고 4강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2점을 보태 5-0으로 달아나며 기선을 제압했다. 주장 김학성이 2엔드 마지막 포석에서 과녁 앞에 완벽한 방어막을 치면서 이탈리아가 손도 못 쓰고 2점을 헌납하도록 한 것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이자 승부처였다.

18일(목) ▲황금사자기 고교야구 (09:50·KBSN SPORTS) ▲프로야구 시범경기 <두산·KIA>(12:00·SBS스포츠·MBCESPN)

50·SBS스포츠), <넥센·롯데>(13:00·MBCESPN) ▲V리그 <GS칼텍스·도로공사>(16:50·SBS스포츠·KBSN SPORTS), <우리캐피탈·현대캐피탈>(18:40·KBSN SPORTS)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5차전 (LG:동부)(18:50·SBS스포츠·MBCESPN)

배구聯 ‘포지션 폴트’ 사고 경위 파악 뒤 책임자 문책

한국배구연맹(KOVO)은 지난 14일 수원 체육관에서 열린 KEPCO45와 대한항공의 경기에서 발생한 ‘포지션 폴트’ 사고에 대해 경위를 파악한 뒤 관련인 심판, 감독관, 기록원을 문책하기로 했다.

▲포지션폴트=배구 경기에서 서브와 자리 이동 순서가 잘못된 것을 말한다. /연합뉴스

1988 김만표 선수의 '칠만표 망수제' 광고. 김만표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1000점의 기록을 세웠다. '망수제'는 김만표의 투구폼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이다. 가격: 12,000원. 연락처: 02-777-9111.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요리학원. (계좌입금·패직지) 국비교육생모집 JS퀴진 요리학원. 전문 요리사 양성에 중점을 둔 요리학원입니다. 상담전화: 226-5500.

침·뜸·경락 38년 전통. 경주 3월 19일(금) 14:00-17:00. 침·뜸·경락 38년 전통. 경주 3월 19일(금) 14:00-17:00. 문의: 1544-6359, 062-236-3516.